

삶의 오르가즘 느끼게 해준 몇몇 책들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외

이성수 | 출판칼럼니스트



나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제발 이 이야기가 과거지사로 끝나기를...), 처음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을 봤을 때 정상위라거나 후배위라거나 등의 성체위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은 줄 알았다. 대학에 입학하면 성에 대해 자유롭다는 이야기를 익히(?) 들어온 바라, 의식화 작업에는 성교육도 포함되는 줄 알았다. 그럼에도 선배들이 도서목록으로 프롬의 이 책을 올려놓았을 때 나는 순진하게도 얼굴이 화끈거렸고 놀랐다. 그런데 책을 손에 쥐었을 때의 그 실망감이란...

《사랑의 기술》이 '참 어렵다'고 느꼈던 건 아마도 그 실망감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사랑은 기술인가?" 묻고 "사랑은 기술이다"는 전체를 두고 이 책은 사랑을 가르친다. 첫사랑을 일찍이 경험한 나로서는 사랑이 기술이라는 전제부터가 맘에 들지 않았다. 사랑은 일종의 충격 아닌가 말이다. 어느 봄날 아침 버스정류장에서 있다가 버스가 오다가 빼꼼이 고개를 내밀다가 눈에 들어온 그 소녀. 그 소녀가 있어서 그날 그 버스정류장에서 나는 환한 아침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연이어 밀려오는 가슴앓이로 내 청소년기의 한권이 몽그러졌던 걸 나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사랑을 배워야 한다니.

프롬은 사랑을 인간 실존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한다. 자연과 분리된 인간이 인간임을 자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일 터다. 그러니까 그 환한 아침의 사랑은 결국 사랑 축에도 끼지 못하는 것이었던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하지만 프롬은 내가 당시 사랑의 기술을 터득했다면 좀더 사랑을 잘 할 수 있었을 거라는 암시를 내게 던져줬다.

이 책은 내용이 조금 어렵지만 편안한 책이다. 아무 부분이나 쪽 펴서 눈이 가는 대로 읽어도 재미가 썩 좋다. 머리말에 두고 항상 읽어도 좋은 책이다. 다행스럽게도 대학 초년생이었을 때는 이 책이 그리 어려웠는데, 최근에 다시 읽으니 한글자, 한글자가 쫓쫓 눈에 박혔다. 내가 사랑의 기술을 좀 익힌 덕분이리라.

아무 곳이나 펼쳐 읽어도 맛깔스러운 책이 한두 종이 아니겠지만 김훈의 《풍경과 상처》(문학동네)도 그런 책이다.

"형들에 묶인 정약용, 황사영, 이승훈들은 살아 남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밀고하며 울부짖었다. 정약용의 배교는 철저하고 거침없었다. 그는 주문모를 밀고했고 천주교도를 색출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을 포청에 조연했다. 정약용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고 발뺌하자 이승훈은 자신이 정약용에게 세례 준 사실을 폭로했다. 치욕은 완벽하고도 심

도 있게 무
르익었던 것이다.
그 후 18년의 강진 유배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의 생애의
한복판에 들어앉은 그 치욕에 관하여
침묵하였다."

김 훈이 다산초당에 관해 쓴 글의 일부로 <정다산에 대한 내 요즘 생각>인데, 그 아픔이 절절이 느껴져 울면서 읽었던 기억이 난다. 누구는 풍경에서 아름다움을 보지만 누구는 아픔으로 그 풍경을 읽는다. 이처럼 풍경에서 상처를 읽어내는 그 마음이 더 아픈 것 같아 안쓰럽다.

《사평역에서》(곽재구, 창작과비평사)도 나는 다시 읽고 싶다. 아니 이 시집은 눈에 떨 때마다 다시 본다. 처음 이 책에 손이 간 것은 순전히 곽재구 시인이 중학교 때 국어선생님을 닮아서다. 그런데 참 좋았다.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 흰 보라 수수꽃 눈시린 유리창마다 / 툭뚱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 / 그땀처럼 맺은 줄고 맺은 감기에 쿨컥이고 /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줌의 툭뚱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눈에 선하게 그려지지 않는가? 이런 아련함 때문에 나는 이 책을 사는 족족 선물하곤 했다. 그래서 집에는 이 책이 없다가 최근에 내 책이라고 갖고 싶어서 또 한권 샀다. 다시 읽어보니 여전히 좋다.

《중국의 붉은 별(전2권)》(에드가 스노우, 홍수원, 두레)을 읽으면서 나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됐다. 러시아에서는 노동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왜 중국에서는 농민들이 있는 곳에서 혁명이 일어났으며, 농민들이 혁명의 주체로 떠오를 수 있었는가 하는 질문이다. 어떤 이는 "그래서 어찌라구" 하며 그 질문이 왜 필요하냐고 물을 것이다. 물론 이 질문은 중국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책을 읽는데 꼭 의미를 따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사치스러운 호기심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중국사회사상사》(송영배, 사회평론)는 중국 사상의 흐름을 토지와 토지의 소유관계를 바탕으로 살펴본다. 그래서 중국의 혁명이 농민과 이를 기반으로 한 세력에 의해 일어났다는 걸 일목요연하게 꿰어준다.

어쨌든 독서는 삶의 체위인 것 같다. 그동안 정상위로 살았다면 이제 후배위로도 살아보는 것이 어떨까. 그럴 때 책은 확실한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는 교본이 될 것이다. 아, 즐겁다! ■